

보도 일시	2022. 9. 29.(목) 09:00	배포 일시	2022. 9. 29.(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정미 (044-203-2611)
		담당자	사무관 김자영 (044-203-2607)

지역문화 현장 의견 수렴으로 새 정부 문화도시 발전 방향 모색한다

- 9. 29. (가칭)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과 함께 9월 29일(목)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가칭)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문화도시 1단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문화도시 정책을 새롭게 재편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18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문화도시 제1단계(문화도시 1.0/’18~’22년)를 넘어 제2단계(문화도시 2.0/’23~’27년)를 준비해 왔으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담아 올해 11월에 ‘(가칭) 문화도시 2.0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 문화도시 방향’을 주제로 지금까지 추진한 문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가칭) 문화도시 2.0 추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정갑영 제4기 문화도시심의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제1부에서는 ▲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서우석 교수가 ‘문화도시 추진

성과와 한계’를, ▲ 문화가치연구소 정광렬 대표가 ‘문화도시 2.0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지역문화, 문화예술, 역사·전통,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문화도시 참여 주체 등이 지정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도시는 지난 3년간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 문화정책을 기획하는 토대를 마련해 지역문화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반면, 주민 참여 활성화에 방점을 두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가시적 성과 창출이 다소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한계와 문제점은 보완, 수정함으로써 새 정부에서는 ‘문화도시 2.0’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새 정부 문화도시가 문화로 지역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문화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문화 정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가칭)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요



새 정부 ^[가칭] 문화도시2.0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 시 2022. 9.29(목) 14:00~17:00

장 소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Program

정책토론회 개회

14:00~14:05

인사말

문화체육관광부 **윤성천** 문화예술정책실장

제1부 : 주제발표

14:05~14:25

서우석
서울시립대 교수



주제 : 문화도시 성과와 한계

14:25~14:45

정광렬
문화가치연구소 대표



주제 : 문화도시2.0 추진 방향

제2부 : 토론

15:00~16:40



좌장 정갑영

前 한국문화진흥연구원장
現 문화도시심의위원장



윤정국
중앙대예술대학원 교수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영선
(주)브이알북 대표이사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옥배
前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허영란
울산대역사문화학과 교수



김종대
디자인연구소「이선」대표



문윤걸
완주문화도시센터장



유승호
강원대영상문화학과 교수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 지역문화진흥원